

# “FA보다 내실” KIA 야구장에 110억 투자

합평 헬린저스 필드 95억  
 훈련 시설·재활센터 마련  
 3군 전용 야구장 1면 증축

챔피언스 필드 15억  
 ML식 프리미엄 의자 교체  
 테이블석, K9석까지 확대  
 전광판 밑엔 어린이 놀이터

과열된 FA 시장에서 지갑을 닫았던 KIA 타이거즈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KIA가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퓨처스 구장인 KIA 헬린저스 필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1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인프라 확충의 핵심은 선수단 육성 체계 구축이다. KIA는 95억원을 들여 합평 헬린저스 필드에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과 부상 재활 시설을 마련한다. 야구장 1면을 증축해 3군 선수단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 야간조명 시설 설치로 육성 선수들의 야간경기 적응력을 높이고 혹서기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헬린저스 필드 부지 내에 등속성 측정기, 3차원 척추안정화 장비, 산소탱크 치료기, 아쿠아 마사지 장비, 돛토리 재활센터 장비 등을 갖춘 재활센터를 신축한다. 재활센터가 완공되면 구단 자체 재활·치료가 가능해져 부상 선수의 회복을 앞당기고, 빠른 복귀를 도와 선수단 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챔피언스 필드의 시설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록 앤드 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5억원을 투입, 지역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팬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했던 KIA는 이번에는 15억원을 들여 관중석 등을 단장한다. 프리미엄 서비스 좌석이 대폭 확충된다. 포수 후면석인 챔피언스석을 메이저리그식 프리미엄 의자로 교체하고, 중앙 테이블석을 기존 K9석 구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시



챔피언스필드 좌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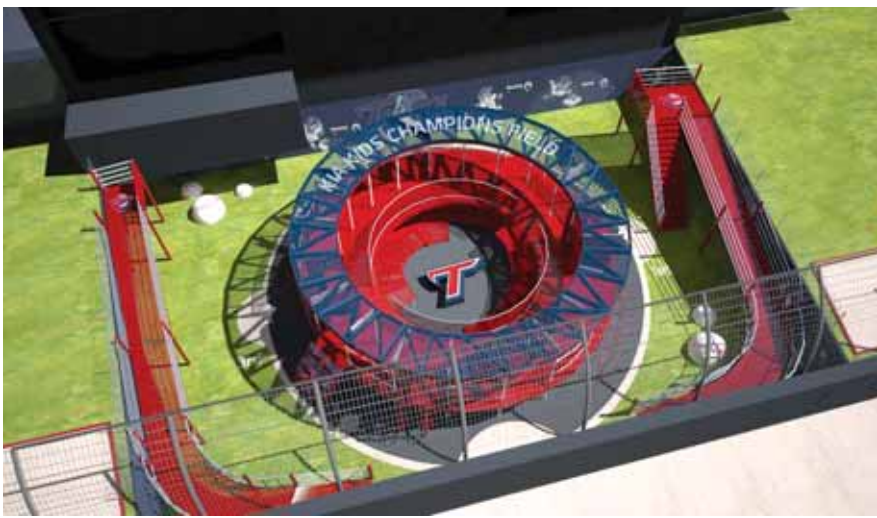
즌 테이블석은 297석에서 626석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3루 내야측에 위치한 ‘타이거즈 가족석’과 동일한 내야 테이블석을 1루측에도 신설해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맞는다.

어린이 팬을 위한 놀이터도 들어선다. 전광판 하단 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미니 챔피언스 필드 놀이터’를 조성해 어린이 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프로야구 유일의 한국시리즈 10회 우승 구단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 상단에 역대 우승로고 및 영구 결번(18번, 7번) 사인물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수단 라커룸 주변과 동선 벽면에 연도별 우승 하이라이트 사진과 역대 감독, 구단 로고 등을 부착한다.

한편 KIA는 올 시즌 초 ‘야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구단’이라는 비전(Team 2020) 실현을 위해 4대 전략과 12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인프라 확충은 ‘최고의 경기력 실현’과 ‘팬 행복 구현’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키즈 놀이터 전경.



선수 복도 통로.

# “ML 4~5개팀서 관심 적응도, 수비도 자신있다”

이대호, 8~11일 윈터미팅 참석차 출국

한국,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룬 이대호(33)가 이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향한다.

이대호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에이전트로부터) 메이저리그 4~5개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말쑥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이대호는 “일본프로야구 적응에 성공한 것처럼 미국프로야구도 적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망이는 물론 수비도 자신 있다”며 더 큰 무대를 향해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뒤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이대호가 향하는 곳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이다.

‘단장회의’로도 불리는 윈터미팅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단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각 구단의 설계자인 단장들은 물론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가 모두 모인 가운데 자유계약선수(FA) 계약, 트레이드 등 선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대호의 미래 역시 이 자리에서 운곡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기대감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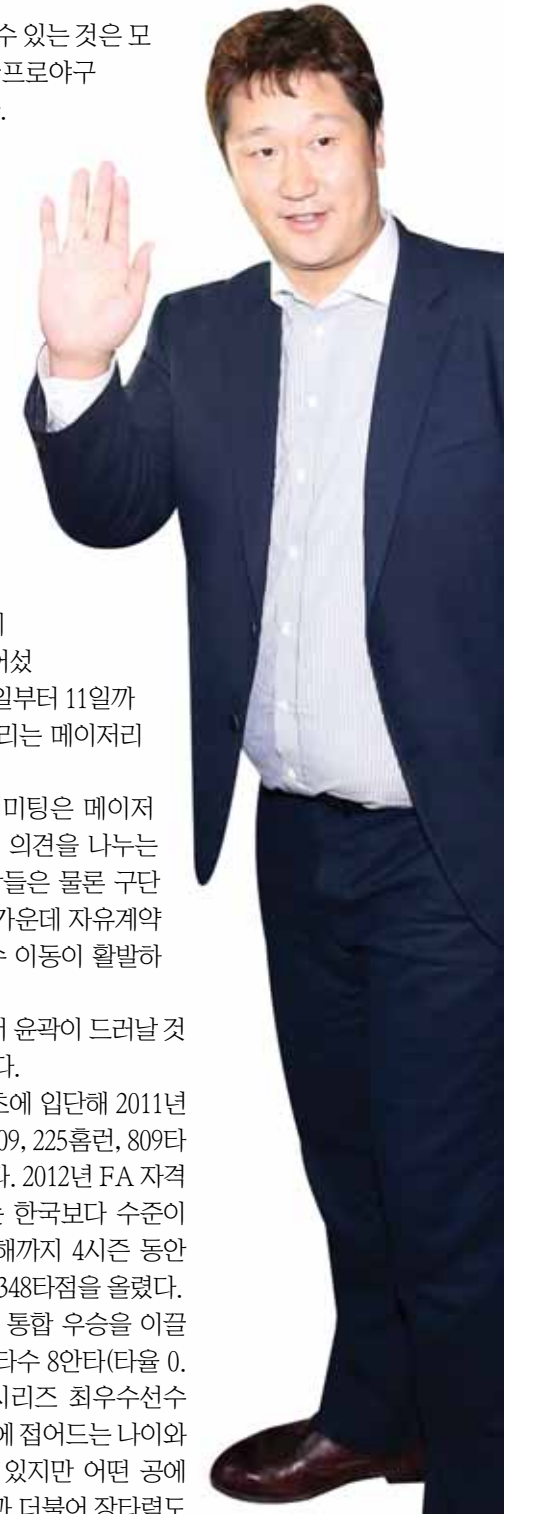
이대호는 2001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2011년까지 1천150경기에 나서 타율 0.309, 225홈런, 809타점을 올리며 한국 무대를 평정했다. 2012년 FA 자격을 얻어 일본에 진출한 이대호는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4시즌 동안 570경기에서 타율 0.293, 98홈런, 348타점을 올렸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 2015 일본시리즈에서는 16타수 8안타(타율 0.500) 2홈런 8타점을 기록하며 시리즈 최우수선수(MVP)까지 수상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와 주루·수비가 약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공에도 대처가 가능한 부드러운 스윙과 더불어 장타력도 준수한 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가 예상치를 다소 밑도는 연봉 계약을 하고, 손아섭과 황재균(이상 롯데 자이언츠)은 아예 응찰 구단도 나타나지 않는 굴욕을 겪은 상황에서 이대호가 한국프로야구의 실추된 자존심을 살릴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대호가 놓인 상황은 다르다. 손아섭과 황재균은 정규시즌이 끝난 뒤에야 미국 진출을 추진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기량을 검증할 시간이 촉박했다. 반면 이대호는 FA 신분으로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 구단의 스카우팅 리스트에 올라 있던 후보다. 기량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물론이고 이적료에 해당하는 포스팅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완전한 FA라는 점도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구미를 당길 요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빅 보이’ 이대호가 2015 메이저리그(미국 프로야구) 윈터미팅 참석차 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KLPGA ‘전인지 천하’

대상·다승왕에  
 9억1300만원 ‘상금왕’  
 70.56타 ‘최저타수상’

해외서도 빛났다  
 日 메이저 2회  
 US오픈 제패  
 한·미·일 메이저 우승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2015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 주요 타이틀을 차지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전인지는 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대상을 비롯해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을 휩쓸었다.

전인지의 2015년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전인지는 이번 시즌 가장 많은 5승을 거두며 상금 9억13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라운드당 평균 70.56타를 기록, 최저타수를 기록했다.

전인지의 활약은 해외에서도 빛났다. 전인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과 일본여자오픈을 제패했을 뿐 아니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까지 우승했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전인지는 LPGA 투어 출전권을 얻어 내년부터 미국 무대로 진출한다. 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27)는 KLPGA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신지애는 이미 2010년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주는 포인트 100점을 쌓았고, 입회기간 10년을 채운 올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생애 단 한번 뿐인 신인상은 박지영(19·하이원리조트)에게 돌아갔다.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2015 KLPGA 대상 시상식’에 전인지가 한복을 입고 입장해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볼티모어전 노히트 노런 이와쿠마, 류현진과 한솔밥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일본인 투수 이와쿠마 히사시(34·사진)와 한솔밥을 먹게 됐다.

미국 CBS 스포츠의 저명 칼럼니스트 존 헤이먼은 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LA 다저스가 이와쿠마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헤이먼은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2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데뷔한 이와쿠마는 2013년 14승 6패에 평균자책점 2.66을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3위에 올랐다.

지난해 15승 9패에 평균자책점 3.52를 찍으며 활약을 이어갔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전하며 129.2이닝을 던지는데 그쳤다.

메이저리그 4시즌 동안 통산 성적은 47승 25패에 평균자책점은 3.17이다. 이와쿠마는 시즌 종료 후 시애틀로부터 158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상위 125명의 평균연봉으로 1년 계약)를 제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됐다. 올해 연봉은 700만 달러.

이와쿠마는 지난 8월 13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작성하기도 했다. 일본인 투수로는 노모 히데오에 이어 2번째 기록이었다. 다저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서 2선발인 잭 그레인키를 잃는 대신 이와쿠마를 영입함으로써 출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